

#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

A Study on Normative Expectation of Emotional Process in Children's  
Textbooks of the Chosen Dynasty (I)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신양재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Instructor : Yangjai Shin*

##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논의 및 결론 |
| II.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br>분석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ormative expectation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in Korean culture by analyzing the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ocument analysis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the following four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that involved individual ethics in everyday life based on Confucianism: 「Dongmongsensp」, 「Gyukmongyogyul」, 「Myungsimbogam」, and 「Sohak」.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antecedent events, emotional consequences, and emotional regulations in the emotional processes of anger, sadness, fear, and shame.

According to the analysis, anger was caused by ought violations, especially sociomoral violations, and the expression of anger brought about undesirable results, and the inhibition of anger was expected as the regulation rule. Also, many methods of regulating anger were encouraged in the textbooks. For example, one of the regulating methods was to appraise a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anger would not arise. In other hand, sadness was allowed to be expressed only at the death of parents, and the expression of sadness stood for filial piety. Meanwhile, the antecedents of fear were the events to threaten self-esteem, which was mainly focused on keeping moral and social standards. Also the social consequence of fear led to observance of the

Corresponding Author: Yangjai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9 Sin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547-3952 E-mail: yangjaishin@hanmail.net

social norms, and thereby could gain social approval. Therefore, the regulation rule was the enhancement of fear because of anticipated advantageous effects. Finally, the main cause of shame arousal was negative evaluation of self caused by bad performance of ethical or social standards. Accordingly, having shame could prevent wrong behaviors or transgressions which might break interpersonal connectedness, and the regulation rule of shame was to enhance this because of contributing to collective relationship.

**주제어(Key Words):** 정서의 유발상황(antecedent events of emotion), 정서의 결과(emotional consequences),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s), 정서의 억제(inhibition of emotion), 정서의 고양(enhancement of emotion)

## I. 서 론

### 1. 문제제기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발달 측면 중에 하나는 상황에 알맞게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일 것이다. 정서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 능력은 또래간 유능성(임연진, 2002), 대인간 문제해결전략(이강이·성미영, 2003), 사회적 능력(우수경·최기영, 2002; 황혜정·김경희, 1999), 자아존중감(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낮은 스트레스 수준(정현희, 2002)이나 공격성 특성(박혜경·박성연, 2002)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의 특성이나 표현에 관한 정보는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내재되어 있어서, 아동들은 정서적 능력을 이러한 일상의 구체적 상호작용 안에 참여하면서 획득하게 된다(Denham, 1998). 즉 정서의 사회화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를 비롯한 주요 사회화 담당자들이 아동에게 그들의 정서를 보여주거나(이혜련·최보가, 2002; 임희수·박성연, 2002), 아동의 정서에 반응을 보이거나(강희연·강문희, 1999; 이지선·정옥분, 2002), 정서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아동들에게 문화로부터 수용할만한 정서 능력을 형성하게 한다(Denham, 1998). 따라서 아동

의 정서사회화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문화의 정서 규칙을 배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된다. 즉 인류가 갖는 신경계나 호르몬 특성에 의한 생리적 공통점 때문에 정서의 생리적 기제는 근본적으로는 보편적이지만, 정서 유발의 맥락이나 표현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되므로 정서의 사회화는 문화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er & Harkness, 1998).

Frijda와 Mesquita(1995)는 문화적 차이가 정서 표현, 정서 경험에 대한 규범, 정서의 사회적 기능 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각 문화는 특정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과 표현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는 표현규칙을 갖고 있다(Gross & Ballif, 1991). 이것을 Ekman과 Friesen(1969)는 문화적 표현 규칙(cultural display rule)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즉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문화 고유의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이 규칙들은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서 표현의 적절성을 규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보편적 정서의 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명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의 표현은 보편적인 생리적 유발과 더불어 학습된 표현규칙의 이중적 영향에 놓인다(Mastumoto, 2000)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행동규칙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사회적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이 획득하여 사용해야 하는 규칙으로서 생애초기인 영아기서부터 학습과정이 이루어진다(Shaffer, 2000)고 한다.

또한 정서 경험 역시 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Eid & Diener, 2001). 즉 행복감이나 자만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가치롭게 여기는 경우에는 긍정

적 사건에 더 민감하여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추구하게 되므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수치심이나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경우에는 그 정서를 유발하기 쉬운 상황에 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이 추구하여 결국 부정적 정서 경험을 빈번히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그 사회가 가지는 정서 경험의 규범은 정서조절에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범은 타인의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주어서, 자만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타인의 이런 정서 경험을 불승인하게 된다. 특히 사회화 과정에서 특정정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신의 규범에 일치하는 아동의 정서 행동에 보상을 줌으로써, 자녀가 특정 정서적 상황이나 정서적 반응을 회피하는 것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정서에 대한 특정 평가 방식을 발달시키도록 하며, 적합한 정서 경험을 유지하도록 자녀의 정서를 규제하는 경향을 갖는다(Saarni, 1999)고 한다.

한편 정서가 갖는 사회적 기능은 기능론적 입장(Campos, Campos & Barrett, 1989; Barrett, 1998)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Campos 등(1989)은 정서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태에 대해 자신과 환경간의 관계를 유지, 변화, 제거해준다고 보았다. 즉 정서가 사회적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그 해석에 따라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사회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정서표현을 조절한다(Barrett, 1998; Frijda & Mesquita, 1998; Jenkins & Ball, 2000; Oatley, 2000)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유아기부터 일찍 발달한다고 한다. Jenkins와 Ball의 연구(2000)에 의하면 아동들은 분노가 상호작용에서 지배의 의사 를 전달하는 정서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면 상대방이 거리를 두게 하여 목적 달성이거나 편안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슬픔이나 두려움은 좀 더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어 사과, 위안, 목적 달성이 제공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6세 정도의 아동이 정서의 이러한 사회적 목적과 결과의 관점에서 분

노, 슬픔, 두려움을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다른 연구(Saarni, 1984)에서도 유아들도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좀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서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어, 6세부터 점차로 부정적 정서 표현의 사회적 결과를 알고,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정서를 긍정적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표현 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유아기에도 정서의 사회적 조절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일부는 그들의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신념으로부터 형성되기도 한다(Jenkins & Ball, 2000).

지금까지 살펴본 정서표현, 정서경험, 정서의 사회적 기능 등은 문화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Markus & Kitayama, 1991; Matsumoto, 2000; Mesquita & Frijda, 1992)고 할 수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은 정서를 자아-중심적 정서와 타자-중심적 정서로 구분하여, 분노 좌절, 자만심과 같은 자아-중심적 정서는 독립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 자주 표현되는데 반해서, 동정, 동료감, 수치심과 같은 타자 중심적 정서는 상호의존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같은 입장에서 정서를 문화와 연결지어서 Matsumoto(2000)는 자만심이나 분노의 정서를 사회-분리적 정서(socially-disengaged emotion)로, 친근감, 존경심, 수치심, 죄의식과 같은 정서를 사회-융합적 정서(socially-engaged emotion)라고 보았고 전자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후자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Grazzani-Gavazzi와 Oatley(1999)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상호의존적 자아체계 문화와 독립적 자아체계 문화의 구분을 적용하여,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분노와 같은 표현이 더 많았고, 상호의존적이고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자의식적 정서인 수치심, 유감과 같은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id와 Diener는 정서 경험의 규범에 대한 연구(2001)에서 서구 문화에서는 긍정적 자의식 정서를,

아시아 문화에서는 부정적 자의식 정서를 보다 중요시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는 결론을 내려 양자의 문화적 차이를 입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아동의 정서발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서표현이나 경험에 대한 문화적 규칙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의 아동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서관련 내용에 있어서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 정서의 효과 그리고 정서 조절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정서 과정은 선행 상황의 지각, 상황에 대한 해석 (event coding), 평가, 생리적 반응 유발, 행위 준비성, 행동 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Mesquita & Frijda, 1992). 이러한 하위 과정 중에서, 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상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미나 도식과 관련을 짓는 과정으로서, 문화에 따른 정서의 고유한 특성은 이 해석과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기대나 상황정의에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 특정 정서적 의미를 갖게 하는 도식은 문화마다 다르게 되므로, 선행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정서의 문화적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esquita와 Frijda(1992)는 상황이 사회에서 잘 규정되어 있고 공유된 관심사를 대표하는 경우 이를 초점 상황 (focal event)이라 명명하고, 이 초점 상황은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므로, 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의 문화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있어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동교육용 교재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Mesquita와 Frijda(1992)가 제안한 초점 상황 (focal event)에 대한 면모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리라 본다.

또한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이란 전망되는 효과에 따라 특정 정서를 억제 혹은 고양시키는 것

으로서, 즉 정서 표출이 야기할 불리한 효과에 대한 전망 때문에 어떤 정서를 억제하거나 혹은 예측되는 유리한 효과 때문에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을 말한다(Frijda & Mesquita, 1998). 그런데 여기서의 불리하거나 유리한 효과의 전망은 특정 정서에 부여된 의미(significance)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 의미는 정서 조절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 따라서 어떤 정서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면 통제가 되며,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정서는 고양되거나 표현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의미의 많은 부분은 문화적으로 규정되게 된다(Eid & Diener, 2001; Lutz, 1987; Markus & Kitayama, 1991; Matsumoto, 2000). 따라서 정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의 문화간 차이는 정서의 효과에 대해 다른 평가를 초래하게 하며, 그것은 정서조절에 문화적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서조절은 정서의 모든 구성요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을 회피 혹은 추구하기도 하며, 선행 상황을 특정 정서가 일어나지 않을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행위 경향을 억압하거나 감소시키기도 하며, 외부적 표현뿐만 아니라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Mesquita & Frijda, 1992). 따라서 정서의 효과와 정서조절규칙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그런데 정서 사회화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정서 표현, 정서이해, 정서 조절 중에서 정서이해에 대한 소수의 연구(이강이 · 성미영, 2003; 이해련 · 최보가, 2002)와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강희연 · 강문희, 1999; 박혜경 · 박성연, 2002; 이지선 · 유안진, 1999; 임연진, 2002; 임희수 · 박성연, 2002)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정서의 표현, 이해, 조절의 측면이 종합되어 진 Salovey와 Mayer(1996)의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 2000; 우수경 · 최기영, 2002; 이주리, 2002; 이지선 · 정우분, 2002; 정현희, 2002; 황혜정 · 김경희, 1999). 이들 대부분 연구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한 측면인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거나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우리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된 연구

는 극히 소수(우남희, 1999)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 사회화과정에 대한 접근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도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문미옥·류칠선, 2000; 신양재, 2004; 우남희, 1999; 우영희, 1989; 유점숙, 1992; 이정덕·송 순, 1993) 전통사회의 아동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서사회화의 대한 문화적 기대의 내용을 알아보자 한다. 이들 아동교육용 교재는 조선사회에서 아동기에 사용된 교재로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라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의 수신을 위한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내용이 어린 시기에 국한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정서사회화과정에 있는 문화의 암묵적 기대에 대한 일면 모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로 보여 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분노, 두려움, 슬픔, 수치심정서에 대한 선행 상황, 정서의 효과, 그리고 정서조절규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은 각각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둘째,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각 정서가 갖는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정서에 대한 조절 규칙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 유발의 선행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특정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의미에 대한 규명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전술한 바 있듯이 정서는 바람직함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특정 정서가 억제되기도 하며, 권장되기도 한다. 즉 특정 정서에 대한 평가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의 효과와 조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정서에 부여한 평가적 의미와 조절 규칙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을 열 수 있으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아동의 정서 사회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방법

### 1) 분석문헌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아동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던 문헌인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을 분석하였다.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학자인 박 세무(朴世茂 : 1487-1567)가 지은 것으로 서당에서 「천자문」을 끝낸 뒤에 배우던 아동교육용 교재(한국사 대사전, 1992)로서, 내용은 오륜(五倫)의 도리를 소개한 다음 총론(總論)을 붙였으며 뒤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다. 「동몽선습」이 저술된 이후에는 다소라도 문자를 아는 사람은 읽을 정도의 수준이어서 널리 읽혔으며, 현종이후에는 왕세자의 교육에도 필독서로 상례화되었고, 영조는 어제서문(御製序文)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아동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서였다는 의의가 있다(성백효, 1992). 본 연구에서는 춘방장판(春坊藏板)을 대본으로 하여 국역(國譯)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낸 것을 분석하였다.

「격몽요결」은 1577년(선조 10년) 이 이(李珥)가 해주(海州) 석담(石潭)에서 강학(講學)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배우는 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4개 장(章)으로 구성되었고, 뒷부분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예절에 관한 내용의 6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현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한다는 입지장(立志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혁구습장(革舊習章), 올바른 몸가짐을 강조한 지신장(持身章), 독서하는 방법인 독서장(讀書章)의 4 장과, 부모를 섬기는 도리인 사친장(事親章), 상례(喪禮)를 논한 상제장(喪制章), 제례(祭禮)를 논한 제례장(祭禮章),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인 거가장(居家章), 사람을 대하는 도리인 접인장(接人章), 처세의 원칙인 처세장(處世章) 등의 6 장으로 되어 있고, 제례의 부연설명인 제의초(祭儀鈔)를 뒤에 붙였다. 「격몽요결」은 「소학」과 「대학」 등 오서(五書)로 들어가는

단계의 기본교양서로 인식되었으며, 이의 많은 저서 중에서 「성학집요」(聖學輯要)와 함께 가장 알려져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본 율곡집(栗谷集)을 국역한 전통문화연구회의 「격몽요결」을 분석하였다.

「명심보감」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격언을 각종 서적에서 발췌하여 만든 책으로 저자와 저술연대가 확실치 않아 고려말 공민왕 때의 추적(秋適)이라는 설과 명초(明初) 범립본(范立本)이 지은 것이라는 주장(성백호, 1992)도 있다. 「명심보감」은 좋은 격언들이 모여 있고 문장이 평이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널리 읽혀진 초학서라고 한다. 내용은 총 20편으로 선행에 관한 계선편(繼善篇), 천명(天命)에 관한 글인 천명편(天命篇), 운명에 순응함에 관한 순명편(順命篇), 효행에 관한 효행편(孝行篇), 몸을 바르게 함에 관한 정기편(正己篇), 분수를 편안히 함에 관한 안분편(安分篇), 마음보존에 관한 존심편(存心篇), 성품을 경계하는 것에 관한 계성편(戒性篇), 배움을 부지런히 하는 것에 관한 근학편(勤學篇),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훈자편(訓子篇), 마음을 살피는 것에 관한 성심편(省心篇) 상과 하, 가르침을 세우는 것에 관한 입교편(立教篇), 다스림에 관한 치정편(治政篇),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치가편(治家篇), 의리에 관한 안의편(安義篇), 예에 관한 준례편(遵禮篇), 말조심에 관한 언어편(言語篇), 벗 사귐에 관한 교우편(交友篇), 부인 행실에 관한 부행편(婦行篇) 등의 20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략본(抄略本)을 대본으로 하여 청주본(淸州本)을 대조하여 국역한 전통문화연구회의 「명심보감」을 분석하였다.

「소학」은 주희(朱熹)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스승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으로 1187년에 완성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부터 필독서가 되어 성균관, 학당, 서원, 서당 등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중요시하였다(손인수, 1993)고 한다. 내용은 입교(立教),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의 내편과 가언(嘉言), 선행(善行)의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교는 교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며, 명륜은 부자(父子), 군신(君

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봉우(朋友)의 윤리에 대한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계고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이전의 사료에서 입교, 명륜, 경신에 부합되는 실례(實例)를 들고 있다. 또한 가언은 한대(漢代) 이후 명현의 격언과 명가의 가훈을 모은 것이고, 선행은 한대 이후의 훌륭한 행실을 모은 것으로, 가언과 선행 역시 입교, 명륜, 경신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학은 이 이(李珥)가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학의 각종 주석서를 모아서 정수만을 뽑아 만든 「소학집주」(小學集註)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선정전훈의본(宣政殿訓義本)을 대본으로 국역한 것을 분석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Denham(1998)과 Lewis(1999)가 제시한 분류를 참고하여 기본정서인 행복감, 분노, 슬픔, 두려움과 자의식 정서인 죄의식, 수치심, 자만심 등의 정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행복감,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기본 정서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로 기능적으로 동등한 상황에서는 성인과 거의 같게 느끼는 정서(Denham, 1998)이고, 자의식 정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자신을 의식하고,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을 의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Lewis, 1999; Denham, 1998)이다. 또한 이들 정서들은 평가 차원에서 내재한 쾌(pleasure)의 원리에 의해서 분노, 슬픔,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 등의 불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각성상태를 유발하는 정서와, 행복감과 자만심 등의 기분 좋은 각성상태를 유발하는 정서로 분류가 된다(Frijda, 1993; Roseman, Antoniou, & Josee, 1996; Scherer, 1999; Smith & Ellsworth, 1985). 이에 먼저 본고에서는 부정적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정서는 정서과정의 평가 단계에서 각각 구분되어, 분노는 목표 방해, 비도덕적 상황, 처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에 유발되는 정서로, 두려움은 타인이나 상황에 의한 갑작스럽고 생소한 사건, 욕구가 방해되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

에 유발되는 정서로, 슬픔은 목표 도달이 어렵고, 대응력이 낮을 때에 유발되는 정서로, 그리고 수치심은 행위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귀인하거나, 자신의 내적 기준과 불일치가 클 때 발생하는 정서로 정의(Mastmoto, 2000)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문헌인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 등에서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정서관련 내용을 추출하였다. 즉 분노와 관련이 있는 怒, 怨, 嘴, 慮 등<sup>1)</sup>이 포함된 대목, 슬픔과 관련이 있는 哀, 悲 등<sup>2)</sup>이 포함된 대목,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懼, 恐, 畏, 戰, 惕 등<sup>3)</sup>이 포함된 대목,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 恥, 憤, 愧 등<sup>4)</sup>이 포함된 대목을 추출하였다. 이들 내용을 선행상황 측면, 정서의 효과 측면, 조절 측면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각각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전술된 바와 같이 정서는 여러 하위 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선행상황(antecedent events)은 특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지각 과정을 말한다(Mesquita & Frijda, 1992). 정서의 효과는 특정 정서를 표현하거나 경험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Frijda & Mesquita, 1998)를 말한다.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이란 전망되는 효과에 따라 특정 정서를 억제 혹은 고양시키는 것으로서, 즉 정서 표출이 야기할 불리한 효과에 대한 전망 때문에 어떤 정서를 억제하거나 혹은 예측되는 유리한 효과 때문에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Frijda & Mesquita, 1998)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하여 추출한 대목들을 각 정서별로 선행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과 방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소학 가연 37장에 '관직을 맡은 자는 화냄을 경계하여,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없게 되는데, 만약 갑자기 화냄을 먼저 한다면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고, 어찌 남에게 해롭겠는가'의 내용에서 분노의 선행상황은 옳지 않음이 있는 상황이고, 정서의 효과는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았고, 정서 조절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 조절 방법은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이치에 맞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서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먼저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상황을 각 정서별로 분류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기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추출된 내용에서 제시하는 정서의 표현이나 경험에 초래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서별로 분석하여, 각 정서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세째로, 추출된 대목에 나타난 금지 혹은 권장의 표현을 정서별로 분류하여 각 정서에 대해 억제 아니면 고양의 어떤 조절을 기대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조절 방법을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1) 각 한자의 자해를 보면 怒(노)는 성내다. 힘쓰다(한한대사전, 1983:636)이고, 怨(분)은 성내다. 힘쓰다(한한대사전, 1983:632)이고, 嘴(진)은 성내다(한한대사전, 1983:352), 慮(애)는 성내다. 화를 내다(한한대사전, 1983:642)로서, 성내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흥분되어 거친 기운을 내다(국어대사전, 1982:1956)로 되어 있다.
- 2) 각 한자의 자해를 보면 哀(애)는 슬프다,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한한대사전, 1983:331)이고, 悲(비)는 슬프다, 서럽다, 슬퍼하다. 마음아파하다(한한대사전, 1983:650)로서, 슬프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서러워서 눈물나거나 한숨이 나오며,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와, 불쌍하고 원통한 느낌이 있다(국어대사전, 1982:2149)로 되어 있다.
- 3) 각 자의 자해를 보면 懼(구)는 두려워하다. 겁이나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 불안을 느끼다(한한대사전, 1983:679)이고, 恐(공)은 두렵다. 두려워하다(한한대사전, 1983:640)이고, 畏(외)는 두려워하다. 겁을 내다. 끼리다, 심복하다(한한대사전, 1983:1166)이고, 戰(전)은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떨다(한한대사전, 1983:685)이고, 惕(파)는 두려워하다(한한대사전, 1983:639)로서, 두렵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끼리어 무섭다. 겁이 난다. 위풍이 있고 위엄이 있어 송구한 마음이 있다. 무서움 마음이 있다(국어대사전, 1982:936)로 되어 있다.
- 4) 각 자의 자해를 보면 恥(치)는 부끄러워하다. 부끄럽게 여기다. 도에 어긋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한한대사전, 1983:643)이고, 憤(참)은 부끄러워하다. 부끄럽게 여기다(한한대사전, 1983:669)이고, 憶(괴)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움(한한대사전, 1983:663)이고, 부끄럽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남을 대할 면목이 없다(국어대사전, 1982:1572)이고, 여기서 양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마음,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正善을 명령하고 邪惡을 물리치는 통일적인 의식으로 특히 자기의 행위에 관하여 선악과 正邪의 판단을 내리는 본연적이고 후천적인 자각(국어대사전, 1982:2408)으로 되어 있다.

## II.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 분석

### 1. 분노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연구의 분석 문헌에 나타난 정서 관련 사항 중에서 분노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동몽선습」 장유유서(長幼有序)의 ①에 의하면 '형제는 가운데 같은 사람이고

꼴육의 지친이니, 더욱 마땅히 우애하고, 분노를 마음속에 감추고 원망을 간직해두어 하늘의 도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서는 분노의 유발상황에 대한 특정화는 없으나, 형제간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분노의 조절 규칙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노에 대한 분석

출처	내용	유발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규칙(방법)
동몽선습 (장유유서)	① 而況兄弟 同氣之人 骨肉至親 尤當友愛 不可藏怒 宿怨 以敗天常也		敗天常	억제(不可藏怒)
격몽요결 (지신)	② …忿思難, 有忿必懲 以理自勝…		難,	억제(有忿必懲以理自勝)
명심보감 (정기)	③ 聞人之謗 未嘗怒 …	聞人之謗		억제
명심보감 (정기)	④ 孫真人養生銘云 懿甚偏傷氣…第一戒晨嗔		傷氣	억제(第一戒晨嗔)
명심보감 (정기)	⑤ 近思錄云 懿忿 如救火…			억제(憲忿 如救火)
명심보감 (정기)	⑥ 蔡伯喈曰 喜怒 在心 … 不可不慎 …			억제(在心 不可不慎)
명심보감 (정기)	⑦ …戒心 莫自貪嗔…			억제(戒心)
명심보감 (계성)	⑧ 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		免百日之憂	억제(忍一時之忿)
명심보감 (계성)	⑨ 愚濁生嗔怒 皆因理不通 休添心上火 只作 耳邊風 長短 家家有 炎涼 處處同 是非無實相 究竟壞成空	皆因理不通		억제(休添心上火 只作 耳邊風)
명심보감 (치정)	⑩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事有不可	只能自害	억제 (當詳處之 必無不中)
소학 (경신 7)	⑪ …忿思難…		難	억제
소학 (가언 9)	⑫ … 其五 急於名宦 置近權要 一資半級 雖或得之 衆怒羣猜…	急於名宦 置近 權要 一資半級		억제
소학 (가언 10)	⑬ …舉世重交游 摯結金蘭契 忿怨 容易生 風波當時 起…			억제
소학 (가언 60)	⑭ …顏淵 不遷怒…			억제(不遷怒)
소학 (가언 37)	⑮ 當官者 先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事有不可	只能自害	억제 (當詳處之 必無不中)
소학 (선행 55)	⑯ …夫人 欲試寬令恚 伺當朝會 裝嚴已訖 使侍婢 奉 肉羹 麻汚朝服 婢達收之 寬 神色不異 乃徐言曰 羹爛汝手乎…	伺當朝會 裝嚴 已訖 使侍婢 奉 肉羹 麻汚朝服		억제

「격몽요결」 지신(持身)의 ②에 의하면 ‘분할 때에는 후환을 생각하고, 화가 나면 반드시 징계하여 이치로써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화를 내면 후환이 결과된다고 보았고, 분노를 억제하며, 조절하는 방법은 이치로서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에서 ⑦까지는 「명심보감」의 정기(正己)에서 ⑧과 ⑨는 계성(戒性)에서 ⑩은 치정(治政)에서 각각 추출한 내용이다. 먼저 ③은 ‘남의 비방을 들어도 화내지 말라’고 하여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으로서 남의 비방을 듣는 경우가 제시되었고, 조절 규칙으로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④는 ‘손진인 양생명(孫眞人 養生銘)에 말하길, 화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여 분노는 기운을 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⑤는 ‘근사록에 말하길, 화냄을 징계하기를 불을 끄듯이 하라’고 하여 화냄을 억제하고 조절방법은 불을 끌 때에 조그마한 불씨도 없이 하는 바와 같이 완전하게 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⑥은 ‘채백개가 말하길,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분노를 스스로 삼가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⑦에서는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고 성내지 말라’고 하여 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분노의 원인을 두고, 조절 방법 역시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여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⑧은 ‘한 때의 화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고 하여 화냄은 근심을 초래하므로, 억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⑨는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자가 화냄은 다 이치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귓전의 바람결로 여기고,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서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으므로, 시비는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혀것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분노는 이치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발되며, 조절방법은 마음에 화를 더하지 말고 귓전의 바람결로 여겨서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⑩은 ‘관직을 맡은 자는 분노를 경계하여,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없게 되는데, 만약 갑자기 화냄을 먼저 한다면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고, 어찌 남에게 해롭겠는가’로 되어 있다. 즉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은 ⑨와 마찬가지로 일에 옳지 않음이 있는 상황이고, 화냄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이치에 맞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절하여 분노를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⑪에서 ⑯까지의 내용은 「소학」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⑪은 경신(敬身), ⑫에서 ⑯는 가언(嘉言)에서 ⑯은 선행(善行)에 있다. 먼저 ⑪은 ‘분할 때에는 후환을 생각하라’고 하여 ②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⑫는 ‘벼슬에 급급하여 권세가 있어 요직을 맡은 자를 가까이 하여 한 품계와 반 등급을 비록 혹 얻는다 하더라도 뭇사람들이 화를 내고 시기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속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여기서 분노의 유발 상황으로 권세가 있는 요직의 사람 덕분에 승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⑬은 ‘온 세상이 교유를 중시하여 금란계를 맷음에 견주는데, 화냄과 원망이 용이하게 생겨나서 풍파가 당장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집설(集說)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분을 맷음에 금란(金蘭)으로 스스로 비유하지만 한 마디 말이 합하지 않으면 성냄과 원망이 생겨남이 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빠름을 알지 못한다’<sup>5)</sup>고 하여 분노는 교분을 맷어 상대로부터 마음을 함께하는 말을 당연히 바라지만 이러한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유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⑭은 ‘안연은 성냄을 옮기지 않았다’라 하여 분노를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⑯는 명심보감 치정(治政)의 ⑩과 동일한 내용이다. ⑯은 후한서 유관열전(後漢書 劉寬列傳)을 인용한 것으로 ‘그의 부인이 유관을 시험하여 성내게 하고자 하여, 조회할 때를 당하여 치장을 이미 마친 것을 엿보고는 모시는 계집종으로 하여금 고깃국을 받아들 올리다가 엎어 조복을 더럽히게 하고는 계집종이 그것을 급히 거두게 하였으나, 유관은 안색을 달리하지 않고 마침내 천천히 말하기를 “국에

5) 言世人結交 多以金蘭自比 不知一言不合 則忿怨之生 速如風波之起矣

네 손을 데었느냐?"하였다'는 일화이다. 이러한 일화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분노를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분노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은 ③과 같이 남이 자신을 비방하는 경우, ⑨, ⑩, ⑫, ⑯와 같이 일이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 경우, ⑯과 같이 자신의 목표나 행위가 방해를 받은 경우로서, Mascolo와 Griffin(1998)이 제시한 분노의 원인에 의한 분류개념으로 본다면 욕구 위반(want violation)에 해당하는 것은 ⑯의 한 경우만이 나타났고, ③, ⑨, ⑩, ⑫, ⑯ 등 많은 경우가 당위 위반(ought violation)에 해당하였다. 또한 분노를 표출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일반적으로는 후환, 기운을 상함, 백날의 근심, 자신을 해침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형제간의 화 냄은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을 결과한다고 보았다. 분노에 대한 조절은 마음에 간직하지 말 것, 이치로서 스스로 이겨낼 것, 새벽에 화를 내는 것은 몸을 크게 상하게 하므로 제일로 경계할 것, 불을 끄듯이 완전히 떨쳐 버릴 것, 자신의 마음을 경계할 것, 참을 것, 마음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귓가에 스치는 바람처럼 여길 것, 상세하게 적절히 처리하여 이치에 맞도록 할 것 등의 조절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모두 조절규칙으로 강한 억제가 기대되고 있었다.

## 2. 슬픔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연구의 분석문헌에 나타난 슬픔 정서에 대한 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동몽선습」총론의 ①에서 '상을 당하면 슬픔을 다해야 한다'고 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선행 상황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보이는데, 이러한 예는 「명심보감」효행(孝行)에서의 ②와 「소학」명륜(明倫) 36의 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슬픔은 규범적으로 권장되며, 슬픔 정서의 결과가 효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심보감」입교(入教)의 ④에서는 '상사에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다'라고 하여 상(喪)에서의 슬픔 표현을 예의 근본으로 보았고, 「소학」선행 43에서도 ⑦의 '상례를 집행함에는 슬퍼함이 심하니, 만석군의 집안은 효와 근신함으로 알려졌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양생(養生)의 입장에서 본 「명심보감」정기(正己)의 ③은 '손진인 양생명에 말하길,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라'고 하여 지나친 슬픔을 억제하였다.

<표 2> 슬픔에 대한 분석

제	내용	유발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규칙(방법)
동몽선습 (총론)	① 父母…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喪		권장(致其哀)
명심보감 (효행)	② …喪則致其哀…	喪	孝	권장(致其哀)
명심보감 (정기)	③ 孫真人養生銘云…勿使悲歡愴…			억제(勿使悲歡愴)
명심보감 (입교)	④ …喪紀有禮 而哀為本	喪	孝	권장(哀為本)
소학 (명륜 36)	⑤ 孝子之事親…喪則致其哀…	喪	孝	권장(致其哀)
소학 (선행 16)	⑥ …母喪 去官 哀毀踰禮…	母喪		권장
소학 (선행 43)	⑦ …其執喪 哀戚甚…萬石君家以孝謹 聞乎郡國…	執喪	萬石君家以孝謹 聞乎郡國	권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슬픔 정서를 기대하는 상황은 부모의 상(喪)인 경우로 지극히 한정된 경 우만이 제시되어 있어, 슬픔 정서가 유발되는 선행 상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슬픔의 표현은 효(孝)로서 해석되며, 슬픔을 강하게 표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경우에는 슬픔 정서가 지나친 것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도 나타났다.

### 3. 두려움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연구의 분석문헌에서 두려움 정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대개의 경우는 두려움 정서에 대해 긍정적이나 ③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제시되었다. ③은 「격몽요결」 혁구습장(革舊習章)에 제시된 일부 내용으로 학문에 전진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옛 습관들을 제시<sup>6)</sup>하고 있다. ③에서 '그 셋째는,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는 풍속에 빠져, 조금 행실을 닦고 삼가려 하나 남들과 어그러 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습관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이러한 습관이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대개 사람들이 남들과 어그러지는 상황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런 두려움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의 두려움은 마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③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두려움 정서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동몽 선습」 총론(總論)의 ①은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고 원망함이 없으며'라고 하여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는 상황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선행상황으로 제시되었고, 이 경우 두려움의 경험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원망이 없을 것을 기대하였다. ②는 '사람의 행실이 착하고 착하지 못함을 보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효도하고 효도하지 않음을 볼 것이니, 삼가며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효의 상황이 두려움을 유발하며, 이러한 두려움 정서가 권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는 「격몽요결」 입지(立志)에서 추출된 내용으로 '뜻을 세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즉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공부에 착수하여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두려움이 유발되어야 할 선행상황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두려움 정서가 권장되는 있다.

⑤에서 ⑧은 「명심보감」에서 추출된 내용으로 먼저 존심(存心)의 ⑤는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다'라 하여 법에 대해서 두려움이 유발될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정서의 결과로 매일 즐겁게 된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법에 대한 두려움 정서를 권장하고 있다. 근학(勤學)의 ⑥에서는 '논어에서 말하길, 배움은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행여 앓을까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움을 잊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두려움 유발을 기대하고 있어, 이 경우의 두려움 정서는 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⑦에서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일도 모두 참되지 아니할까봐 두려운데, 등 뒤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고 하여 직접 경험한 일의 허위 가능성을 두려움 정서 유발 선행상황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두려움 정서가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⑧에서 '영(令)은 고을의 장관이니, 만약 부형을 섭기는 도리로써 섭져서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잘한 것은 형여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와 같은 성의를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함이 있겠는가'라 하여 공이 상관(고을의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를 두려움 유발 상황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성의를 쌓아서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권장됨을 알 수 있다.

⑨에서 ⑯은 「소학」에서 추출된 내용으로 먼저 명륜(明倫) 21의 ⑨은 앞선 ①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신(敬身) 11의 ⑯은 '관경중이 말하길,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기를 질병과 같이 여기는 자는 사람 중에 상등이요, 은혜로 회유함에 따르기를 물이 흐르듯이 하는 자는 사람 중에 하등이요,

6) 人雖有志於學 而不能勇往直前 以有所成就者 舊習 有以  
沮敗之也 舊習之目 條列如左

〈표 3〉 두려움에 대한 분석

출처	내용	유발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규칙(방법)
동몽선습 (총론)	① 父母愛之 喜而不忘 惡之 懼而無怨…	父母惡之		권장(懼而無怨)
동몽선습 (총론)	② 欲觀其人 行之善不善 必先觀其人之孝不孝 可不慎哉 可不懼哉…	不孝		권장
격몽요결 (혁구습)	③ …其三 喜同惡異 泊於流俗 稍欲修飭 懼乖 於衆…習之害心者 大概如斯…此習 使人志不堅固…	乖於衆	害心	억제
격몽요결 (입자)	④ …所貴乎立志者 卽下工夫 猶恐不及 念念不退故也…	即下工夫 猶恐不及		권장
명심보감 (준심)	⑤ 懼法朝朝樂…	法	朝朝樂	권장
명심보감 (근학)	⑥ 論語曰 學如不及 惟恐失之	學如不及 惟恐失之		권장
명심보감 (성심 하)	⑦ 經目之事 恐未皆眞 背後之言 豈足深信	經目之事 恐未皆眞		권장
명심보감 (치정)	⑧ …令 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 事之 過則歸己 善則唯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	善則唯恐 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 不動得	권장
소학 (명륜 21)	⑨ …父母愛之 喜以弗忘 父母惡之 懼而無怨…	父母惡之		권장
소학 (경신 12)	⑩ 管敬仲曰 畏威如疾 民之上也 從懷如流 民之下也 見懷思威 民之中也	(天之)威		권장
소학 (가언 10)	⑪ 怡怡奉親長 不敢生驕易 戰戰復兢兢 造次必於是…	(不)奉親長	孝悌	권장
소학 (가언 80)	⑫ 未知養親者 欲其觀古人之先意承顏 怡聲下氣 不憚劬勞 以致甘軟 楊然慙懼 起而行之也	未知養親	起而行之	권장
소학 (가언 88)	⑬ 前輩嘗說後生 才性過人者 不足畏 惟讀書尋思 推究者爲可畏耳 又云讀書 只怕尋思 盖義理精深 惟尋思用意 為可以得之…	惟讀書尋思推究者/尋思	蓋義理精深 惟尋思用意 為可以得之	권장
소학 (선행 21)	⑭ …我不奉東宮指導者 恐負翟黑子故也	恐負翟黑子		권장
소학 (선행 59)	⑮ …吾方致力中原 過爾優逸 恐不堪事…	恐不堪事		권장
소학 (선행 61)	⑯ 孔勘 於爲義 若嗜慾 不顧前後 於利與祿 則畏避退怯 如懦夫然	利與祿		권장

회유함을 보고 하늘의 위엄을 생각하는 자는 사람 중에 중등이다' 라 하였다. 여기서 하늘의 위엄에 대하여 두려움을 유발함을 기대하고 있고, 이 두려움은 궁정적으로 권장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언(嘉言) 10의 ⑪은 '기쁘게 부모와 어른을 받들어 감히 교만하거나 핍부로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고 다시 조심하여 지극히 깊은 동안에도 반드시

이처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모와 어른을 잘 받들지 못 할 경우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정서는 결국에 효제(孝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권장됨을 알 수 있다. 가언(嘉言) 80의 ⑯에서는 '부모를 봉양할 줄 모르는 자는 선인들이 자기 부모의 뜻에 앞서 안색을 받들며, 목소리를 화하게 하고 기운을 낮추며, 수고

를 꺼리지 아니하여 달고 연한 음식을 바쳤던 것을 보고, 척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분발해서 행하고자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를 봉양할 줄 모름에 대하여 수치심과 두려움 유발이 기대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정서의 경험은 분발하여 부모 봉양을 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언(嘉言) 88의 ⑬은 '선배가 일찍이 말하기를 후생 중에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글을 읽음에 찾아 생각하고 미루어 궁구하는 자가 두려워할 만하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글을 읽음에 다만 찾아 생각함이 두렵다고 하였으니, 의리는 정밀하고 깊으므로 오직 찾아 생각하고 뜻을 써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즉 글을 읽음에 찾아 생각하고 미루어 궁구하는 사람이나 경우에 두려움을 유발할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서 경험은 결국 의리(義理)를 얻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보았고, 이러한 두려움 정서가 권장됨을 알 수 있다. 선행(善行) 21은 북사(北史) 고윤열전(高允列傳)의 일부로 친구를 속이지 않은 고윤의 일화를 들어 선행의 본보기로 제시된 것이다. 그 일부인 ⑭은 '내가 동궁의 지도를 받들지 않은 것은 속이지 말라고 말해주던 탁혹자를 저버릴까 두려워해서이다'라는 내용에서, 친구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는 두려움 정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두려움 정서는 권장됨을 알 수 있다. 선행 59는 진서(晉書) 도간열전(陶侃列傳)으로 집설(集說)에 따르면 '당시에 중원(中原)의 땅이 유요(劉曜)와 석록(石勒)에게 점거되니 도간(陶侃)은 힘을 다해 회복하려고 하였으므로 아침저녁으로 벽돌을 짓겨 수고로운 일을 익힌 것이다?'이라 하고 있다. 그 일부인 ⑮는 '내 장차 중원에 힘을 가하려 하는데, 지나치게 편안하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서이다'라는 내용으로 두려움 정서가 뜻한 바 일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유발됨을 알 수 있고, 이 정서를 권장하고 있다. 선행 61의 ⑯은 '공감(孔勸)은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듯이 하여 앞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이익과 봉록에 있어서는 두려워하고 괴하고 물러나 겁내어 마치 나약한 지아비와 같았다'라는

선행 사례로서 여기서 이익과 봉록에 대해 두려움 정서를 기대함이 나타났고, 이러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이를 권장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려움 정서가 유발되길 기대하는 상황으로는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 불효의 경우, 학문을 시작하여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학문을 읽게 되는 경우, 직접 보아 경험한 일이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경우, 잘한 일이 상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하늘의 위엄, 부모와 어른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경우, 글을 읽을 때에 찾아 생각하여 궁구하는 일, 친구를 저버리는 경우, 뜻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이익과 봉록 등이며, 두려움 정서를 억제하길 기대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어그러지는 경우이다. 두려움 정서가 초래하는 긍정적 결과로는 매일의 즐거움, 성의가 쌓이게 됨, 효제(孝悌), 부모 봉양을 행하게 됨, 의리(義理)에 이르게 됨 등이 나타났고, 부정적 결과는 마음을 해치게 됨으로 나타났다. 두려움 정서에 기대하는 조절 규칙은 상황이 도덕적 혹은 윤리적 기준과 관련된 경우에는 두려움 정서가 권장됨을 알 수 있다.

#### 4. 수치심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연구의 분석 문헌에 나타난 수치심 정서와 관련이 있는 대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수치심 정서에 부정적 의미를 두어 억제해야 할 정서로 보는 경우는 ①, ④, ⑤, ⑥이고 나머지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격동요결」의 혁구습장(革舊習章)의 ①은 <표 3>의 ③에서 마찬가지로 끊어버려야 할 습관 중에 하나로 '그 일곱째는, 부유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여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습관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이러한 습관이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한다'라 하여 나쁜 옷과 음식이 수치

7) 時 中原之地爲劉石所據 倭欲致力興復 故 朝夕運甓 以習勞也

&lt;표 4&gt; 수치심에 대한 분석

출처	내용	유발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규칙(방법)
격몽요결 (혁구습)	① …其七 歆羨富貴 嚴薄貧賤 惡衣惡食 深以爲恥… 習之害心者 大概如斯…此習 使人志不堅固…	惡衣惡食	害心	억제
명심보감 (안분)	② …知止常 終身無恥	(不)知止常 (不)止		권장
명심보감 (존심)	③ 心不負人 面無慙色	心負人		권장
명심보감 (성심 상)	④ 子曰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惡衣惡食	未足與議	억제
소학 (경신 40)	⑤ 孔子曰 士志於道以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惡衣惡食	未足與議	억제
소학 (경신 41)	⑥ 孔子曰 衣敝縕袍與衣狐 豺者 立而不恥者 其由也與	衣敝縕袍		억제
소학 (가언 9)	⑦ …不悅古道 憎前經而不恥…	憎前經		권장
소학 (가언 60)	⑧ …伊尹 恥其君不爲堯舜…	其君不爲堯舜		권장
소학 (가언 80)	⑨ 未知養親者 欲其觀古人之先意承顏 怡聲下氣 不憚劬勞 以致甘軟 恬然懶懶 起而行之也	未知養親	起而行之	권장
소학 (가언 80)	⑩ 素鄙恪者 欲其觀古人之貴義輕財 少私寡慾 忌盈 惡滿 眇鶻恤匱 极然悔恥 積而能散也	素鄙恪	積而能散	권장
소학 (선행 23)	⑪ …如其非理所得 此與盜賊何別 總無大咎 獨不內愧 於心…	其非理所得		권장
소학 (선행 57)	⑫ …謁見 懷金十斤 以遺震 震曰 故人 知君 君不知 故人 何也 密曰 莫夜 無知者 震曰 天知神知我知 子知 何謂無知 密 懈而去	謁見 懷金十斤 以遺震…天知 神知我知子知 何謂無知		권장
소학 (선행 80)	⑬ 吾家本寒族 世以清白相承 吾性 不喜華靡 自爲乳兒時 長者加以金銀華美之服 輒羞棄去之…	加以金銀華 美之服	清白相承	권장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으나, 이런 경우의 수치심은 억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치심은 마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심보감」 성심(省心)의 ④나 「소학」 경신(敬身) 41의 ⑤는 '선비가 도에 뜻을 두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 하는 자는 족히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고 하여 ①과 같이 나쁜 옷과 음식에 대한 수치심 정서 유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학 경신 41의 ⑥도 역시 '공자가 말하기 해진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가죽옷을 입는 자와 함께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중유(中由)일 것이다'라 하여

해진 솜옷과 같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수치스러워하길 않길 기대하였다.

이와는 달리 수치심 정서를 긍정적으로 여겨 권장의 조절규칙이 적용되는 대목이 많이 발견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명심보감」 안분(安分)의 ②에서 '그칠 줄 알아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라 하여 욕심을 그칠 줄 모르는 상황에 수치심 정서가 유발된다는 기대가 나타나 있으며, 이런 경우 수치심 정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심보감」 존심(存心)의 ③은 '마음에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고 하여 마음에 남을 저버리는 경우 수치심 정서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치심 정서가 긍정적으로 권장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학」 가언(嘉言) 9의 ⑦은 '옛날 경서를 모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라는 내용에서 경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치심 정서가 유발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도 수치심 정서가 권장됨을 알 수 있다. ⑧에서도 '이윤(伊尹)은 그 임금을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으며'라는 내용에서 신하로서의 책무를 다 못하는 경우를 수치심 정서가 유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수치심 정서의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언 80의 ⑨는 <표 3>의 ⑫에 제시된 대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모를 봉양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수치심 정서의 유발 선형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치심의 경험은 결국 부모 봉양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하는 정서로 보았다. 같은 곳의 ⑩은 '본래 비루하고 인색한 자는 선인들이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며 가득 찬 것을 꺼리고 충만한 것을 싫어하며,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보고, 얼굴을 붉혀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재물을 쌓되 나누어주고자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비루하고 인색한 것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며, 이러한 수치심의 경험은 뉘우쳐서 재물을 모으되 나누어 줄 줄도 알게 해주는 것을 결과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선행(善行) 23의 ⑪은 '만일 도리가 아닌 것으로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적과 무엇이 다르며, 비록 큰 죄는 없더라도 홀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라 하여 도리가 아닌 것을 얻는 것은 수치심 정서가 유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57은 후한서(後漢書) 양진열전(楊震列傳)의 일부분으로서, ⑫는 '그가 양진을 알현할 적에 황금 10근을 품고 가서 양진에게 바치자, 양진은 말하길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함은 어째서 인가?" 하니, 왕밀(王密)은 "늦은 밤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양진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이가 없다 말하는가?" 하니 왕밀은 부끄러워서

그대로 물려갔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집설(集說)에서는 '군자는 밝은 곳에서는 하늘을 속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는 신을 속이지 않으며, 안으로는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는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⑯에서 자신과 세상을 속이는 경우는 수치심 정서가 유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를 알 수 있으며, 수치심 정서의 경험이 권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 80의 ⑯은 '우리 집안은 본래 빈한한 집안으로 대대로 청백을 서로 계승하였으며, 내 성품이 화려하고 사치함을 좋아하지 않아서 유아였을 때로부터 장자가 금은과 화려한 옷을 더해주면 수치스러워 하며 버렸다'고 하여, 금은이나 화려한 옷과 같은 물질적 사치가 수치심 정서를 유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수치심 정서는 청렴결백을 계승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권장되는 정서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치심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은 나쁜 옷과 음식,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남을 저버리는 상황, 경서에 통달하지 못하는 상황, 맡은 공적 책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 부모를 봉양할 줄 모르는 경우, 천박하고 인색한 경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얻는 경우, 세상과 자신을 속이는 상황, 물질적 사치 등이 나타났다. 또한 정서의 효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나쁜 옷과 음식을 수치스러워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전망하였고, ⑨, ⑩, ⑯과 같이 자신의 부족이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의 경우는 바람직한 결과를 전망하고 있었다. 수치심 정서 조절에 대한 기대로 상황에 따라 달라서 물질적 결핍에 대한 수치심은 억제를 기대하였고,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상황으로서 ①, ④, ⑤, ⑥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의 경우와 ②, ③, ⑦, ⑧, ⑨, ⑩, ⑪, ⑫, ⑯과 같이 윤리적, 학문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정서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조절의 규칙도 다르게 기대되었다. 즉 물질적 결핍에 대한 수치심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로 억제하길 기대하나,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 수행에 부족함에

대해서는 수치심 정서를 기대하여 자신의 부족함에 힘쓰도록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사회화과정을 문화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으로서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과정을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문헌은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 등으로,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수신(修身)에 관한 교육용 교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의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분노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분석문헌에 나타난 분노 정서과정은 우선, 분노를 유발하는 선행상황의 특성으로는 당위 위반, 특히 사회도덕적 위반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의 경험이나 표현하는 것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였고, 분노 조절을 위해서 주로 정서의 평가과정에서 분노 유발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노의 유발 선행 상황은 자신의 목표나 행위가 방해를 받은 경우, 남이 자신을 비방하는 경우, 일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과정에 근거해서 분노를 분류(Mascolo & Griffin, 1998)해 볼 때, 욕구위반(want violation)보다는 당위 위반(ought violation)이 주로 나타났다. 즉 가치나 적법성과 같은 도덕 관련 기준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당위위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분노 정서는 집단의 상호의존성이나 조화에 위협적인 정서로서 보았기 때문에 억제의 규범이 지배적이고(Markus & Kitayama, 1991), 더욱이 본

분석문헌이 수신서라는 점에서 볼 때 욕구좌절은 말할 것도 없이 당위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분노를 억제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강한 억제 규범이 내재해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당위 위반에 의한 분노 유형(Mascolo & Griffin, 1998)으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의 저버림이나 배신과 같은 관계적 위반(relational violation)에 의한 분노나, 개인의 자율성의 침해, 비난과 같은 자아에 대한 공격과 같은 개인적 위반(personal violation)에 의한 분노는 본 분석에서 매우 적게 나타난 반면에, 도덕 원리나 사회 관습, 공적 기준의 위반에 의한 사회도덕적 위반(sociomoral violation)에 대한 분노의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분석문헌이 수신서라는 특성에 의한 제한적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성격의 문헌에 대한 분석에 의한 보강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분노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고, 분노의 조절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분석된 모든 상황에서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정서의 평가과정에서 분노의 유발 강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평가의 목적-유의미성 차원(Mauro, Sato, & Tucker, 1992; Roseman, Antoniou, & Jose, 1996; Scherer, 1999)에서 분노의 결과로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후환이나 몸을 상하게 되어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평가나 궁전의 바람처럼 여김으로써 자신에게 별로 심각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일반적 특성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귀인과정이 지배적이나(Berkowitz, 1999; Frijda, 1993; Roseman, Antoniou, & Jose, 1996; Scherer, 1999; Smith & Ellsworth, 1985), 본 분석문헌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분노의 원인을 귀인시킴으로써 평가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노의 정서과정은 분노를 유발하는 평가에 의해서 열, 압력, 긴장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느끼면서 원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상황을 없애려는 행동, 예를 들면 언어적, 신체적 공격, 화난 표정과 몸짓 등의 행동 경향을 띠게 된다.

(Berkowitz, 1999 ; Mascolo & Griffin, 1998). 그런데 분석문헌에서는 분노의 일반적 행동 경향성을 금지시키고 이치를 따져서 일을 처리하여 분노의 표현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노 정서는 억제할 것을 기대하였고, 분노의 조절을 위한 방법들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Matsumoto(2000)는 정서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서 볼 때, 분노 정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정서로, 사회·분리적 의미를 지닌 정서라고 보았다. 즉 분노의 경우 목표나 소망과 같은 내적 특성이 방해받거나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서의 표현이나 경험은 자아를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하여 자아의 독립성 지각을 촉진하게 되고 상호의존성에 위협이 되므로 상호의존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는 억제되어야 할 정서인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분노의 억제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조절의 방법이 아동교육용 교재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2. 슬픔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분석 문헌에서 추출된 슬픔 정서와 관련되는 내용에서는 슬픔을 유발하는 선행상황은 대부분이 부모의 상(喪)을 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슬픔의 표현은 효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픔의 표현을 지극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상은 슬픔 표현의 규범적 상황이고, 강하게 표현할 것을 기대하는 표현규칙(display rule)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Mesquita 와 Frijda(1992)가 제안한 초점 상황(focal event)이라 할 수 있다. 초점상황이란 상황이 사회에서 잘 규정되어 있고 공유된 관심사를 대표하는 경우로서,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슬픔 정서에 대해서는 그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선행상황에 대한 세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에 근거해 볼 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픔 정서의 빈도나 강도는 매

우 약하게 경험되거나 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매우 적은 사례로부터 나온 것 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3. 두려움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분석문헌에 나타난 두려움 정서과정은 먼저, 두려움이 유발되는 선행상황은 자신에 대한 윤리적, 학문적, 공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상황과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결과를 개인에게 가져다주며, 조절의 규범적 기대는 두려움 정서의 고양을 지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신체나 생존에 위해가 타자나 자연에 의해서 야기되거나(Scherer, 1999), 정서의 원인이 상황에 있을 때의 정서(Roseman, Antoniou & Jose, 1996)이다. 이에 반해서 본 분석에서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주된 상황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도덕적 기준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것은 Mauro, Sato와 Tucker(1992)가 문화에 따라 특정 정서의 유발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유발되기도 하나, 문화에 따라서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위협이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정서 유발의 평가과정에 문화적 신념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두려움의 유발 원인으로서 자기-존중감의 위협이 가장 비중이 있는 선행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나, 친구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나 기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기-존중감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됨으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각성 상태를 경험하지 않도록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무 수행에 노력하려는 동기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와 정서간의 관계에 대해서 독립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는 정서표현을 단지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지만, 상호의존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는 도구

적 행위로서 대인간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분석결과를 통해 서 두려움 정서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의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의미있는 타자와의 상호 유대감이나 조화의 유지에 위배되는 상황에 부정적 각성상태를 느끼게 하는 두려움 정서가 결합됨으로 써,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즉 집단 유지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회피하게 되는 동기와 행동 경향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 정서는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단주의적 문화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두려움 정서는 고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으로 권장되는 규범적 기대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4. 수치심 정서에 대한 규범적 기대

수치심 정서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물질적 결핍과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수치심 유발의 선행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심 조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물질적 결핍에 대한 수치심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은 고양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Matsumoto(2000)는 수치심이나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거나 그 관계에 해를 끼친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서로서, 이 정서들은 이전 행위를 보상함으로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동기화시키므로, 사회-융합적 의미를 갖는 정서 (socially-engaged emotion)로 보았다. 따라서 수치심 정서를 누구나 경험하기는 하지만, 아시아와 같은 상호의존적 자아체계를 가진 문화에서는 사회-융합적 정서가 좀더 내면화되어 있고 좀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Eid와 Diener(2001)은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와 같이 자아를 전체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개념화하는 자아 개념을 가진 문화에서는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를 보다 중요시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

였다. 즉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는 자신이 통제 할 수 있었는데 잘못했거나 적절하지 못했을 때 유발되는 정서로서, 이러한 정서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정보에 보다 집중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도록써, 자신을 사회적 기대에 맞게 통제하는데 기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과 죄의식은 자기-의식성, 자기-평가, 내적 귀인, 도덕적 함축, 대인관계에 대한 염려 등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나, 수치심과 죄의식은 각기 고유한 기능적 특성이 있어 죄의식은 주요 관심이 특정 문제 행동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한편, 수치심은 문제 행동 이상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데까지 확장되어 일반적으로 죄의식보다 더 고통스럽다(Denham, 1998)고 한다. 또한 수치심은 죄의식에 비해서 좀더 공적인(public) 정서로서, 죄의식이 자기-생성적 양심으로 일어나는 좀더 사적인 경험이라면, 수치심은 위반이나 단점에 대한 공개나 사회의 불승인에 의해 유발되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Tangney, 1999). 따라서 수치심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죄의식은 잘못한 것을 교정하려는 행동으로 동기화되나, 수치심은 회피행동으로 동기화된다(Denham, 1998)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한계를 가졌으나, 분석에 따르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평소에 억제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강조되는 정서의 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수치심 경험은 평소에 자신의 총체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무력감이나 무가치감이 동반되어(Tangney, 1999), 자아를 주장하기 보다는 노출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Markus와 Kitayama(1991)가 제시한 상호의존적 자아체계의 문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자신을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보게 만들며, 관계속의 타자의 생각, 감정,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신을 의식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결정하게 하는 동기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수치심과 같은 정서가 도와

준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정서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정서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정서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정서사회화과정에 작용하여, 특정 정서가 바람직하다고 학습된다면 이 정서를 자유롭게 경험하고 표현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학습된 경우에는 그 정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게 된다. 정서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의 한 결과(Eid & Diener, 2001)에 의하면 유교문화권에서는 정서에 부여하는 일반적 가치가 서구 사회와 달라서, 모든 정서에 대해 중용이나 억제를 가치롭게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 아동 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 지능을 분석한 우남희의 연구(1999)에서도 조선시대 교육에서는 정서조절로서 표현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가르쳐 정서표현 자체를 억제하도록 교육하였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정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상이한 특성이 나타났다. 즉 분노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로서 억제에 대한 강한 조절 규범이 나타났고, 조절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다른 부정적 정서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권장의 조절규범이 나타났는데, 집단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조화에 기여하는 윤리적 기준이나 공적 의무와 결부되어 동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런 정서가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므로 그 정서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경험하도록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적응적 기능을 갖고 있어, 이들 정서는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해 줌으로써 이 부정적 정서의 신호를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Eid & Diener, 2001)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서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교를 근간으로 한 조선사회가 중요시하던 집단의 상호유대나 조화의 유지나 윤리적 의무 수행에 정서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각 정서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정서적 특성은 현재의 정서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이 되어 문화적

기대로서 전승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정서조절 동기에 대한 이지선과 유안진(1999)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의 분노조절은 관계적 동기가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부모가 서양의 부모보다 자녀의 분노 표현에 더 엄격하게 사회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했다.

이상의 결과는 정서 중에서 부정적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정서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긍정적 각성상태를 유발하는 정서에 대한 분석이 보강되어야 좀더 종합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조선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에 사용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현재의 정서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어 나타나는가의 경험적 검증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들이 지금까지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정서의 문화적 규범으로서 어떻게 얼마나 작용하는지에 대한 좀더 다각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작업은 현재의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한 규명의 기초로서 선행되어야 할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분석에서 사용된 규범적 성격이외의 다른 문헌 자료에 대한 분석이 보강되어서 정서과정에 영향을 주는 문화맥락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성백효 譯註(1992). *童蒙先習·擊蒙要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성백효 譯註(1992). *明心寶鑑*.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성백효 譯註(1993). *小學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이희승 編著(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이가원, 권오돈, 임창순 監修(1982). *한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유홍렬 監修(1992). *한국사대사전*. 대구: 고려출판사.  
 강희연, 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문미옥, 류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4.
-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6.
- 손인수(1993).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 신양재(2004). 소학에 나타난 자아의 개념적 표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207-227.
- 우남희(1999).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20(1), 3-14.
- 우수경, 최기영(200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 변인간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3(6), 15-32.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본 자녀양육-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점숙(1992). 조선시대 동몽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지*, 13(2), 113-128.
- 이강이, 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지식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정덕, 송 순(1993).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57-168.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65-78.
-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동기와 정서조절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

- 절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 황혜정, 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Barrett, K. C. (1998). A functionalist perspective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s. In M. F. Mascolo, & S. Griffin(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 (pp.109-133). NY: Plenum Press.
- Berkowitz, L. (1999). Anger.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411-428). NY: John Wiley & Sons.
- Campos, J., Campos, R.,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Eid, M., & Diener, E. (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Inter-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69-885.
- Ekman, P., & Friesen, W. V. (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 49-98.
- Frijda, N. H. (1993). The place of appraisal in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7, 357-387.
- Frijda, N. H., & Mesquita, B. (1995). The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51-8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ijda, N. H., & Mesquita, B. (1998). The analysis of

- emotions: Dimensions of variation. In M. F. Mascolo, & S. Griffin(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 (pp.273-295). NY: Plenum Press.
- Grazzani-Gavazzi, I., & Oatley, K. (1999). The experience of emotions of interdependence and independence following interpersonal errors in Italy and Anglophone Canada. *Cognition and Emotion*, 13, 49-63.
- Gross, A. L., & Ballif, B.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s: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1, 368-398.
- Jenkins, J. M., & Ball, S. (2000). Distinguishing between negative emotions: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ocial-regulatory aspects of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4, 261-282.
- Lewis, M. (1999). The role of the self in cognition and emotion.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125-142). NY: John Wiley & Sons.
- Lutz, C. (1987). Goals, events, and understanding in Ifaluk emotion theory. In D. Hol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pp.112-1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colo, M. F., & Griffin, S. (1998). Alternative trajectories in the development of anger-related appraisals. In M. F. Mascolo, & S. Griffin(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 (pp.219-249). NY: Plenum Press.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world*, 2th. CA: Wadsworth.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01-317.
-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s in emotion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179-204.
- Oatley, K. (2000). The sentiments and beliefs of distributed cognition. In N. H. Frijda, A. S. R. Manstead, & S. Bem(Eds.), *Emotions and beliefs: How feelings influence thoughts* (pp.78-1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man,I. J., Antoniou, A. A., & Jose, P. E. (1996). Appraisal determinants of emotions: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0, 241-277.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 Scherer, K. R. (1999). Appraisal theory.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637-663). NY: John Wiley & Sons.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CA: Wadsworth.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uper, C. M., & Harkness, S. (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 (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34-47). NY: Routledge.
- Tangney, J. P. (1999).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541-568). NY: John Wiley & Sons.

(2004년 2월 9일 접수, 2004년 6월 14일 채택)